

‘동상이몽’ 광주·전남 행정통합, 새국면 맞아

이용섭 시장, 다른 대안 등 밝혀 경제통합론 김영록 지사 ‘화답’ 교착상태 통합논의 급물살 주목 이 시장 즉흥적인 철회 지적도

광주·전남 시·도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통합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통합논의가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 시장은 19일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의 시·도통합 관련 시정질문 답변에서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 통합방식이나 통합시점은 중국적으로 시도민이 결정할 문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말미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말한 경제통합이나 메가시티 등도 논의기구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는 광주·전남이 두 차례 실패한 행정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대구·경북 통합 사례를 주장했던 이 시장이 행정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통합



지난해 11월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이 열리고 있다. 합의문 서명을 마친 (왼쪽 두번째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이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5

방식과 시기 등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세인 시·도 통합에 대해 찬성했지만, 시기와 방법 등 각론에서는 입장이 서로 달라 ‘동상이몽’ 속에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이 시장의 입장 선회는 김 지사가 역제안한 경제권 통합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했던 행정통합 논의를 이 시장이 철회했다는 시각도 있다.

또 이 시장은 송 의원이 제안한 시도 공동융역발주 제안에 대해 “시도간 통합논의기구에서 공동연구용역을 협의하겠다”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향후 통합에 대한 방식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김 지사가 지난주 도정질문 답변에서 “통합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방법과 절차 등을 연구하면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민선 8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통합방식, 시점, 절차 등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가 일단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의 통합이 행정통합만이 아닌데, 그렇게 비쳐졌지만, 통합방식이나 시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점에서 시도간 통합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오늘 입장은 결국 통합논의를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진행하자는 김 지사의 뜻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통합논의는 전문가 집단에서 머리를 맞대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관계자는 “통합논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처럼 진행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 이 시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동안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한 논리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영암군 지역 상품권 불법유통 강력 대처

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 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해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제청 세무조사 의뢰·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소등섬 사업현장 /장흥군

장흥군 용산면 ‘소등섬 둘레길’ 본격 조성 추진

장흥군은 용산면 남포마을 소등섬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장흥군 최초 읍·면 대상 공모사업인 2021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에 ‘용산면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소등섬 권역에 장흥을 대표하는 언택트 시대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기존 해맞이, 사진촬영 등 관광 명소로 기능해 온 소등섬 일대에 둘레길, 전망대, 야간경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1년부터 약 30억 이내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장흥(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l@

신안군 우이도 ‘반려동물과 여행 섬’으로 변신

신안군의 하얀 모래섬의 우이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반려인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자연, 동물과 다양한 식물이 공존하는 우이도에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영원한 추억의 장소로 기억되도록 조성한다.

이에 따라 우이도 마을간 연결 도로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101마리 달마시안 점박이 개, 프란타스의 개 파트리쉬, 설화와 전설에 등장하여 주인과 사람의 생명을 구한 명견 등을 형상화하고, 동물의 생명 윤리의식을 높이고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반려동물장묘시설(화장장, 납골당)을 확충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애견호텔, 애견동반 가능한 민박시설, 달뜰물랑 산책로와 놀이터, 애견전용 풀장도 함께 설치한다.

또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상생하고, 결과속이 아름다운 ‘펫섬’으로 조성한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코스모스 물결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문산천 주변 3만3000㎡에 코스모스와 국화꽃이 만개해 저녁노을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다고 파주시가 19일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

부산시, 신혼 주거부담 완화 주택용자 확대 등 대폭 지원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기준 완화 주택용자 1억5000만원으로 확대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용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변경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로 돼 있는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최대 1억원의 전세자금 지원 금액을 평균 전세

의 50% 정도로 높여 실효성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신혼부부인정 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에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또, 전세보증금 대출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확대돼 최대 1억5000만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경북교육청, 교육공동체 인성교육 강화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은 장기간원격수업으로 인한 대면 생활지도 부족에 따른 인성교육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은 실천·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기본으로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의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교육청은 원격수업이 지속되면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개 권역(포항, 안동, 구미, 문경, 경산) 인성교육지원센터와 경북도교육청연구원 인성인문학교육지원센터에서 공예, 다도, 천연염색, 저자와의 만남 등을 주제로 155개교를 대상으



경북교육청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등 다양한 인성교육 강화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 시 매시간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하고, 온라인 활용 칭찬 릴레이, 시낭송, 도전! 성취프로그램 등 쌍방향 소통의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예천군,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예천군은 지역 내 우수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고 다른 사회적기업의 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은 민간 주도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 기관이 직접 지역 특성과 자원을 조사해 그에 맞는 지역 기반형 기업을 발굴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에 군은 사회적기업의 양적·질

적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예천군 지역 특색을 활용한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의 협력·상생을 위해 경북창업성장사회적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올해 예천군 사회적기업 우수 모델은 서민프레시 농업회사법인 김유진 대표와 농업회사법인 회룡포주식회사 한상준 대표가 선정됐다. 군은 지난 15일 경북창업성장사회적재단에서 주최하는 협약식을 통해 참여기업의 온라인 광고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